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대학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NO.398 2023. 10. 26.(목)

발행인 김상식 주간 김희선 간사 방미향 편집장 김채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4 대학
뜨거운 가을
우리 모두 하나 된 울림 :
波動



8 취업
컴퓨터공학과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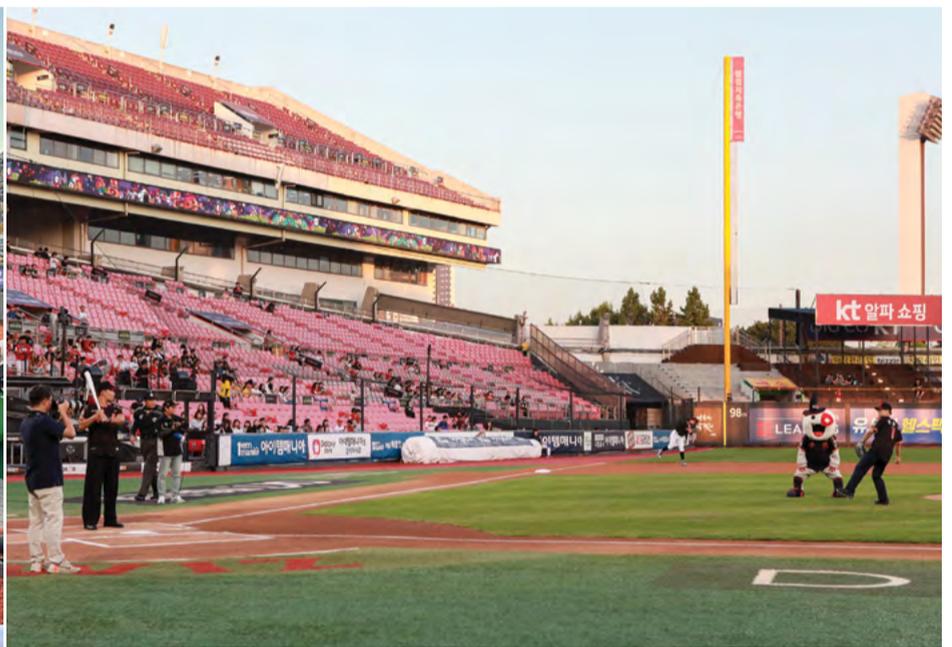


10 문화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13 기획
2023
동아리 페스티벌
'Sketch Village'

본교 총장 '2023 KT WIZ 스폰서 데이' 맞이해 시구 행사 참여



9월 8일 '스폰서 데이'를 맞이해 수원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SSG랜더스의 경기에 본교 김상식 총장과 박주혁 총학생회장이 시구와 시타를 선보였다. 이날 김상식 총장과 박주혁 총학생회장은 경기 전 간단한 연습 후 그라운드에서 시구 행사를 진행하였다. 시구자로

경기장에 선 김상식 총장은 '스폰서 데이를 맞이해 시구자로 나서게 되어 영광이다. 오늘 시구가 KT위즈를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며 시구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경기장에는 본교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해 시구와 시타에 나선 김상식 총장과

박주혁 총학생회장을 향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학우들의 격렬한 환호 속에서 진행된 시구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경기장에 참석한 많은 학우의 응원과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 행사 덕분에 KT위즈가 대승리를 거두었다. 성결대학교의 이번 대규모 스포츠 행사 참여는 대학의

이미지와 이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KT WIZ 제공

'2023 KT WIZ 스폰서 데이'서 탄소중립 캠페인 CLEAN:US 실시

지난 8일 KT 위즈파크 프로야구장에서 열린 '2023 KT WIZ 스폰서 데이'를 맞이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본교 재학생 약

100여 명이 경기 관람 중 텀블러를 지참하고, 경기장 내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의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

이 캠페인은 본교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캠퍼스 프로젝트 'CLEAN:US'의 일환으로, 학생지원과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속초시와 협력하여 저탄소 총 연합연수회와 교내 탄소중립 흥

보 캠페인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관련한 캠페인을 교내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시타에 나선 박주혁 총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서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CLEAN:US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본교 학우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글/사진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2023학년도 2학기

성결대학보 기자를 소개합니다!

- 편집장**
김채린(사복 20) cofls787@sungkyul.ac.kr
- 부편집장**
박제현(도디 17) zcjtjdzz@sungkyul.ac.kr
- 정기자**
이서연(국제 20) tjds1596@sungkyul.ac.kr
김다은(국문 22) kjgg99@sungkyul.ac.kr
- 수습기자**
유진규(도디 17) thanfaktmxj@sungkyul.ac.kr
김정민(미소 21) kjm020102@sungkyul.ac.kr
권경아(경영 22) kka468@sungkyul.ac.kr
김근형(관광 22) hanangun@sungkyul.ac.kr
지연서(관광 22) yeonsoe0127@sungkyul.ac.kr
이현림(도디 22) lks070812@sungkyul.ac.kr
김채린(중문 23) kl3672@sungkyul.ac.kr

학술정보관, '2023 문화공감 및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본교 학술정보관에서 8월 26일 '2023 문화공감 및 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공감 행사는 본교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가 인문학, 문화, 예술을 함께 체험하며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의 구성은 다양한 학부 및 동아리의 문화 공연, 신수원 감독의 작품 '오마주'의 상영, 그리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포함한 성결인디시네마로 이루어졌다.

이날 함께 열린 전자정보박람회에는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엠스코 등 총 13개의 국내외 전자정보업체들이 참석하였다. 이 박람회는 교수와 학생들의 전자 자료에 대한 이용 증대와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참여자들은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학술 DB, 전자저널, e-Learning, e-Book, 오디오북 등 다양한 전자정보 이용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교육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모은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되었고, 선착순으로 오픈런 이벤트도 진행했다.

본교 심혜영 학술정보관장은 "이 행사가 학부생, 대학원생,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자자료의 활용 방법을 익혀 학습 및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서대문교회 故 김기현 목사 도서기증식 가져



지난 9월 11일(월) 재림관 8층 총장실에서 서대문교회 고(故) 김기현 목사 도서기증식이 진행됐다. 기증된 도서는 ▲『찬미가』 ▲『신약성서전해』 ▲『찬미가역사』 ▲『구신약성서』 ▲『신약성서』 ▲『한일찬송가』 ▲『존 웨슬리(존·웨슬리)』 ▲『신약성서』를 포함한 533권이다. 서대문교회의 고 김기현 목사가 생전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소장했던 도서를 본교 학술정보관에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전부 일본어 원서로, 그중 대표도서인 『찬미가역사』는 예비사와 료오(涇老澤 亮)가 1910년 동경 교문관출판부에서 발행한 저서로 서양의 국가별 찬미가 역사와 작가의 전기, 부기로 일본 찬미가에 관하여 다룬 책이다. 또한 『신약성서전해』는 요네다 유타카(米田 豊)가 연재하고 있던 성서일과를 출판한 책

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독교 관련 도서가 기증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후임 목사인 서대문교회 김요한 목사가 참석하여 본교 김상식 총장, 학술정보관 심혜영 관장과 함께 감사장 전달식을 가졌다. 감사장은 서대문교회와 유족에게 수여됐으며, 슬픔에 잠겨 참석하지 못한 고 김기현 목사 유족 대신 김요한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증된 도서 중 대표도서 8권은 한 달간 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 전시되었으며, 추후 기증도서 전체는 후학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관 4층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 기증이 본교의 역사자료 보존 및 성경 연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TEC 인문영상 융합사업,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체험학습 실시



▲영화영상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세 학과에서 연합으로 진행 중인 2023년 TEC 인문영상 융합사업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세 학과 학생들과 인솔 교수들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월드 시네마>, <커뮤니티비프>, <와이드앵글-한국단편경쟁>, <와이드앵글-다큐멘터리경쟁> 영역에서 두 작품 이상을 필수로 감상하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영화의 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등을 오가며 여러 나라의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감상하고 여러 부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영화 페스티벌의 열기에 동참하였다.

특히 화제작과 실험작들의 상영 직후 마련된 감독, 배우와 관객과의 대화 자리

는 영화와 관련된 인물들과 직접 소통하며 영화의 의미를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심언빈(영문21) 학생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체험학습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한층 더 기를 수 있었다. 글로만 읽었을 때와 영화를 보았을 때를 비교하면서 한 영화에 대한 복선 요소들을 유추하고 찾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영화 상영 후 감독과 인터뷰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어 인문영상 융합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인문영상융합사업단

문화프레임빅데이터 연구소, 단기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실시



본교 문화프레임빅데이터 연구소가 8월 8일부터 한 달여간 일본의 오사카관광대학교와 함께 온라인(메타버스)을 병행한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본 프로그램은 문화프레임빅데이터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양교의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차별화된 문화요소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 및 교류에 참여한 양교의 학생들은 9월 7일에 개최된 공동 성과발표회에서 지난 한 달여간 쌓아온 우의를 다졌다.

오사카관광대학교 오하라(小原一博) 부총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본 컬처마이닝 코스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양

교가 협력하여 국제 교육 및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문화프레임빅데이터 연구소장 이준서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코로나를 계기로 구축된 본 연구소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코로나 이후에도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행사였다. 향후에도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의 본 컬처마이닝 코스(CMC)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외 대학의 확대에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본 프로그램이 양교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GMT연구센터 제공

신학대학, 정선군서 아웃리치 봉사 '컨츄리꼬꼬5:등불 포레스트' 실시



본교 신학대학에서 지난 7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컨츄리꼬꼬5:등불 포레스트가 진행됐다. 본 행사는 신학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오현철 교수(신학대학장) 지도 아래 38명의 학우가 모여 준비했다.

▲복음안예새교회 ▲서상교회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신수동교회 등의 후원을 받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26일 수요일에는 팔달시장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꾸레미'에서 발생한 수익금 100만 원을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행사를 총괄한 신학대학 학생장 백세운

(기교 18) 학우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컨츄리꼬꼬를 다시 진행한 것, 후원의 손길, 함께 땀 흘려준 학우들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함께한 김수영(신학 23) 학우는 "처음 참여한 외부 봉사 활동이기에 몸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참여했다. 앞으로 있을 신학대학의 사업에도 동참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컨츄리꼬꼬 행사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길 바란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참고] - 신학대학

'천원의 아침빵' 행사 실시

본교에서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빵'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전 8:30부터 9:30까지 본교 학생회관에서 총 100명의 학우들에게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된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시간 부족으로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취지에 발맞추어 건강한 아침 식사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김상식 총장은 "학생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침식사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빵' 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샌드위치와 커피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 및 성결대학교 동문들의 기부와 성결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후원으로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천 원에 제공한다.

이 행사를 위하여 ▲좋은이웃교회 김윤석 목사 ▲고천교회 김만수 목사 ▲주찬양교회 홍사진 목사 ▲소망교회 김규식 목사 ▲거룩한씨성동교회 최윤영 목사 등 본교 동문들이



앞장서서 총 1천 6백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통해 본교 학우들이 아침에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페가수스, '2023년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치어리딩 챔피언십 페스티벌' 대상 수상



지난 9월 16일(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2023년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치어리딩 챔피언십 페스티벌'에서 본교 대표 응원단 페가수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본선 무대에는 전국 대학 및 동아리 소속의 치어리딩 응원단 12팀이 진출했고 본교 응원단은 최선의 노력 끝에 값진 결과를 얻었다. 특히 22대 페가수스 응원단이 참여한 첫 대회였던 만큼 그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이에 페가수스 단장 김가영(관광 21) 학우는 "올해 첫 대회에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었다. 열심히 끊임없이 연습한 페가수스의 노력을 대상으로 증명하여 뿌듯하고 정말 기뻐다. 또한 무대에서 즐겨준 단원들이 너무나 빛났고, 한 명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페가수스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더욱 발전하는 성결대학교 응원단 페가수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페가수스는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청년의 날 전국 치어리딩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대회 수상을 포함해 두 번의 대상이라는 영광을 차지했다. 매년 ▲교내 공연 ▲찬조 공연 ▲치어리딩 대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가수스의 다양한 소식은 페가수스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 무대 최선을 다해 멋진 공연을 선사하는 페가수스 응원단을 앞으로도 응원한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zz@sungkyul.ac.kr

사진/참조 - 페가수스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유롭게 뜻을 펼쳐 주세요!
성결대 학보사는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Instagram | sku_press
e-mail | skupress223@sungkyul.ac.kr
H.P | 031-467-8998
office | 학생회관 223호

뜨거운 가을 우리 모두 하나 된 울림:

波動

2023 영암체전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이번 체전 명은 '뜨거운 가을 우리 모두 하나 된 울림 : 파동'으로, 9월 25일(월)부터 9월 26일(화)까지 진행됐다. 본 행사는 '모든 색이 하나 돼 캠퍼스를 물들이며 새로운 울림의 <파동>을 만들자'라는 총학생회의 선포처럼 쌀쌀해진 가을을 학우들의 열기로 일렁이게 만들었다. 2023 영암체전, 이번 학보에서 그 열기를 느껴보자!

#예선전, 그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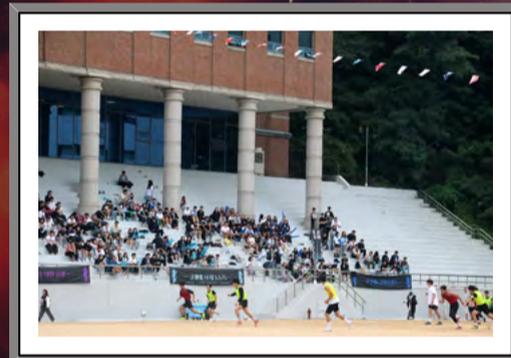
2023 영암체전의 경기는 ▲남성 종목(축구, 농구, 족구) ▲여성 종목(발야구, 피구, 손족구) ▲혼성 종목(볼링, 배드민턴, 댄스, E-sports)으로 나뉘었으며 1, 2라운드-3라운드(4강)-3·4위전-결승전을 거쳐 일정이 진행됐다. 9월 5일(화)부터 시작된 예선 경기 결과 남자 4강전에서 축구는 경영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농구는 글로벌물류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족구는 연기예술학과와 국제개발협력학부가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편 여자 4강전에서는 발야구와 피구, 손족구 모두 유아교육과와 연기예술학부가 결승전에 진출했다.

혼성 볼링 4강전은 국제개발협력학과와 영어영문학과가 승리한 후 당일 결승전에서 영어영문학과



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은 신학과와 국제개발협력학과 중 신학과가 최종승리를 차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중어중문학과

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피파온라인4는 컴퓨터공학과와 체육교육과의 결승전에서 겨뤘지만 두 종목 모두 컴퓨터공학과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 넌 내꺼야!



9월 25일, 2023 영암체전의 개막식이 진행됐다. 각 단과대학의 휘날리는 깃발이 영암체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에는 농구에서 글로벌물류학부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결승전이 펼쳐졌다. 학우들의 열띤 응원과 치열한 경기 끝에 ▲피구 - 유아교육학과 ▲축구 - 경영학과 ▲족구 - 연기예술학과 ▲댄스 - 문화선교학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시행됐다. 한 팀당 16인으로 진행한 계주 프로그램 '태풍의 눈' 외 대형 윗놀이판을 이용한 '웃놀이'와 '가을밤의 시네마'가 학우들의 흥을 돋웠다. 가을밤의 시네마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총학생회의 주관 '우리가 만드는 행사' 대상 수상작이다. 상영 영화는 <너의 결혼식>이었다.

#즐거보자~~~

이번 영암체전은 모든 학우가 행사를 더욱 즐기기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과연 학우들은 어떻게 영암체전을 즐겼는지 알아보자!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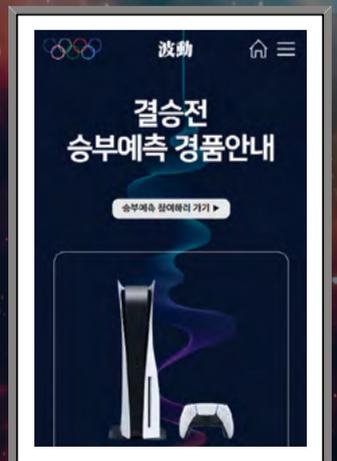
페이스 페인팅은 뷰티디자인학과와 총학생회의 협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손과 얼굴에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 승부예측

승부예측은 5종목의 결승전 결과를 예측해 이를 성공한 학우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총학생회와 본교 동아리 '멋쟁이사자처럼'의 협업으로 진행돼 더욱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상품은 플레이스테이션5로, 모든 종목의 결과 예측에 성공한 학우에 한해 랜덤 추첨을 하는 방식이었다. 만일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예측률이 가장 높은 학우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9월 26일, 둘째 날이 밝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우천으로 인해 더 이상 운동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체육관에서 영암체전을 진행했다. 이날은 손족구와 발야구 결승 경기가 있었다. 손족구는 유아교육과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발야구는 우천으로 인해 경기를 치를 수 없어 기독교교육상담학과가 3등을 차지하며 모든 경기를 마쳤다.

이 외에도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 ▲축구 올스타전 ▲줄다리기 ▲합동 응원전 ▲O/X퀴즈 ▲계주가 이뤄졌다.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는 전략 탑 쌓기 프로그램이며, '축구 올스타전'은 성결FC와 각 단대별 대표자들의 축구 대결 프로그램이다. '합동 응원전'은 폐가수스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모두가 참여한 응원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해져 본교 학우들이 더욱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했다.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

마침내 2023 영암체전의 끝을 알리는 폐막식이 진행됐다. 시상식 결과, 응원상은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연기예술학과 ▲유아교육과가 받았으며 단과대학 1등은 사범대학이 차지했다. 이후에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간단한 인사와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2023 영암체전이 막을 내렸다.

농구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병주 학우(국제 20)는 "저희 팀은 경기를 준비하는 도중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학우들의 응원과 팀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시합을 치렀습니다. 학과 동기들의 열렬한 응원은 우리에

게 힘을 주었고, 우리 팀은 이런 응원에 보답하듯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힘으로 메달을 얻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학과와 팀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켰으며, 앞으로도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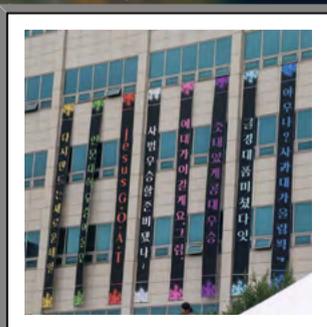
학우들의 청춘에 파동을 일으킨 2023 영암체전, 이를 위해 노력한 모든 학생회와 학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글- 이서연 기자 tjus1596@sungkyul.ac.kr
사진- 학보사 일동, 본교 제공



#즐거보자~~~

이 외에도 ▲굿즈 ▲포토존 ▲인생네컷 ▲피크닉 ▲푸드트럭 등을 통해 모든 학우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영암체전을 즐길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이전 알고도 당한다?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보이스피싱. 일상에 파고들어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만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발달하는 세상에 맞춰 함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번 호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두 번째로 '파밍'이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다. 사용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고 금융정보를 탈취 후 범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다. 즉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해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행 수단이다. 세 번째로는 '피싱'이다.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받

송하고 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게 한 후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 접속 후에는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길 요구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메모리해킹'이다. 이는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 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되는 수법을 말한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끊이지 않는 피해사례

보이스피싱에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 동향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했던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피해 금액은 3조 8,681억 원이다. 또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2019년 2,963건이었던 스미싱이 2021년에 1만 7,841건으로

약 6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23년 5월,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메시지는 자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 원격제어가 되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상품을 구매 후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환불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환불받는 대포통

장을 여러 개 두고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범행 방식은 신종 수법으로 온라인 쇼핑몰 환불 과정을 악용한 것이다. 덧붙여 은행과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금 정지가 어려운 점을 노려 피해자들이 쉽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을 단순히 목소리를 흉내 내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옛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딥보이스'는 AI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에 당한 범죄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최모 씨는 딸에게 자신이 사채업자에게 붙잡혔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하지만 딸과 계속 대화를 나눌수록 이상한 느낌을 받고 다시 딸에게 전화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다. 이 전화 음성 파일을 정보, 전자 분야의 전문가인 전수환 숭실대 정보 통신 전자공학부 교수에게 전달하고 분석을 요청했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실제 인간 목소리지만 딸과 남성의 목소리는 AI라고 밝혀졌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

2019년도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독일의 한 에너지 회사 CEO의 목소리를 AI 기술을 이용해 변환시켰고, 이를 악용해 영국의 자회사 CEO로부터 약 3억 500만 원을 빼

앗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난 3월 캐나다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로 아들의 목소리를 만들어 약 2,000만 원의 암호화폐를 갈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요즘은 1분 미만의 SNS 영상만으로도 특정인의 목소

리를 복제할 수 있을 만큼 점점 딥보이스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처럼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유사 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없는 걸까...?

점점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도 대처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우선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OTP라고 불리는 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를 사용하고 보안 토큰(비밀번호 복사 방지)을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출처 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보안 카드번호 전부를 절대로 입력하지 말아야 하고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

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나 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자.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출처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미싱은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는 절대 입력을 금지하고 t스토어, 올레마켓, 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 앱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예방법이 통하지 않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신고 전화 112)나 금융감독

원(민원 상담 1332)을 통해 지금 정지를 요청 후 피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피해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점점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예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피해사례를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글 - 김채린 수습기자 k13672@sungkyul.ac.kr

사진 - 국민일보

[참고] - 국민일보, 동아일보, 통계청, 경찰청

국내 치안의 붕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치안 강국으로 평가됐으며 다수의 자국민은 이를 인정하며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문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번 호에서 살펴보자.

연쇄적인 범죄

7월 21일 서울 신림역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백화점 앞으로 승용차를 끌고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친 후 백화점 내부로 이동해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

상 당했다. 흥기 난동 사건에 이어 대낮 공원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지마 범죄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무차별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236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금까지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지마 범죄자들의 공통점

최근 일어난 문지마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림역 사건의 가해자는 8개월 동안 외출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으며 서현역 사건 가해자 또한 최소 1년 이상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사람들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 동기 범죄자 중 약 71%가 사회적 고립을 보였다. 중증정신질환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기간

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무차별 살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행복의 상징을 찾아 부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가 좌절감을 부추기며 빠져버린 분노를 조장한다. 사회가 나한테만 불공평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뒤쳐졌다는 패배감이 동기가 된 경우가 많았다.

사고 현장 영상 유포, 사회적 도덕과 법적 책임은?

사고 현장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됐다. 신림역과 서현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도 많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사고 현장 영상이 유포됐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집단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컸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영상이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의지 상관없이 다수

의 누리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런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인식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다. 영상 자체가 잔혹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대응법

문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에게 법의 엄격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시민들에게는 법의 확실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쉽게 찻값을 치르고, 피해자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치주의와 처벌로 인해 치안이 좋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태형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길

러줄 수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치안이 안전한 이유는 단순히 법치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의 국민에게 법률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중요성을 엄격하게 교육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국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지마 범죄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편견을 가져서 생긴다. 증오범죄, 편견범죄는 일본에서 먼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본의 범죄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다. 일본의 문지마 범죄 가해자

도 사회와 고립된 삶을 살았으며 버블경제가 꺼지면서 빈부격차,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같은 문제들을 한 원인으로 봤다. 이에 일본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2021년 고독, 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좌절한 청년들을 위한 접근성 좋은 상담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은 2021년 정부 기구인 고독 고립 문제 대책실을 설치해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 일본의 저명한 범죄 심리학자인 기류 마

사유키는 한국 정부가 무차별 살상 범죄를 자세히 연구하고 유사 범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정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순찰대를 꾸리는 것도 당장의 치안 대책으로 뽑혔다. 가해자들은 순찰자 앞에서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2002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지역방범패트roll 제도'가 도입된 후 범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학교처럼 보복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기관에 외부인의 실내 출입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안이다.

**잇따르는 문지마 칼부림과 모방 범죄, 테러로 보고 대응해야
또 터진 '문지마 흥기 난동'에 시민들 떠난다
'문지마 범죄' 공포 확산...통계도 없어 대책 난망
신림역 사건 13일만에 또 '문지마 칼부림'
'문지마 칼부림'에 일상이 된 공포... 비상한 치안 대책을
분당 서현역서도 '문지마 칼부림'
길 가던 사람들 또 '문지마 칼'에 찔렸다
통계·연구 없고 '뒷북 대응' 급급한 문지마 범죄**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고민

'문지마 범죄'라는 용어 사용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지마 범죄는 범죄의 동기를 묻지 말라는 뜻에서 사법 기관 혹은 수사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용어다. 문지마 범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안의 본질, 그 범죄의 본질을 추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범죄를 다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2022년 1월부터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낙인효과란 정신질환을 앓거나 관련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각종 선입견이 낙인으로 남아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때 해당 기록이 취업과 같은 사회 활동에서

단점이 될까 봐 정신질환 치료를 기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입견을 막지 못하면 더 많은 정신 질환자를 유발하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이 사회적 고립과 분노를 촉진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속의 삶은 빛나고 완벽해 보인다. 이런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을 비교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이 커질 수 있다. 몇몇 개인에게 이러한 패배감은 분노로 작용해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컴퓨터공학과를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관련 산업 전공자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교의 컴퓨터공학과 또한 IT 인력 양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본교 컴퓨터공학과를 소개 후 '자랑스러운 성결인'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과 소개

본교의 컴퓨터공학과는 기독교적인 인성 교육과 다양한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지능형 서비스 환경 지원을 위한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컴퓨터공학과는 본교에서 최초로 특성화 학부로 선정돼 "Global IT Professional 양성"을 추구해 왔다. 산업체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C, Java, 보안, IoT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인 심화교육과 실무 위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 전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 후 현장에 바로 적응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본 학과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성 교육 ▲외국어 능력 함양 ▲해외 탐방/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컴퓨터공학 핵심 분야와 응용 분야, 최신 기술 등을 교과과정 및 학술 세미나에 반영

해 창의적 공학교육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실습으로 창의적 시스템 설계교육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교육을 한다. 덧붙여 프로그래밍 언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프로그래밍 캠프 등의 비교과 과정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학과 발전 계획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 분야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능형, 개방형 산업 수요를 충족하고, 융합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서비스 환경 지원을 위한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교육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한 "즉시 현장 실무에 투입 가능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 달성"이라는 발전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구체적인 전략은 ▲지능 융합 ▲글로벌 경쟁력 ▲실무 중심 ▲산학 연계 ▲학생 밀착으로 나뉜다.

'지능 융합'을 위해서는 지능형 서비스 환경에서 융복합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해 개발 분야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공학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IT 탐방 및 해외 IT 연수를 통한 국제화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실무 중심'을 위해서는 실무 전문교육, 청년 취업아카데미 등 졸업 후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계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더불어 산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산학체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학자문위원회 및 산업체 멘토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학인증소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인증받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입될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해 준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사회, 졸업생, 재학생의 요구를 교과과정에 지속해서 반영시킴으로써 졸업 후 공학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서 전문 엔지니어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 학과는 KCC 2015 인증 기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학생

이 공학인증 교육으로 졸업하고 있으며, 2016년도 이후 입학생은 모두 공학교육인증으로 졸업하는 단일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학인증 교육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내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교육 경쟁력 전국 10위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학교육 인증 제도의 장점은 기본 소양과 함께 전공에 기반한 실력과 자질을 갖추고 적성에 맞는 전문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 진출 시 취업이 유리하며 국제적인 엔지니어의 자격을 인증받는다.



#졸업 후 그리고 취업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쌓는다면 취업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군은 프로그래밍 시험 또는 기술 면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이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업 시 준비하면 좋은 국가 기술 자격증에는 ▲정보

처리 기사 ▲리눅스 마스터 ▲네트워크 관리사 등이 있다.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모바일/웹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안 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컨설턴트 ▲게임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서버 관리자 및 기획자 ▲시스템 엔지니어 등 IT와 관련된 직종으로 진출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 바란다.

글 - 김정은 수습기자 kjm020102@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참조] 본교 홈페이지

자랑스러운 성결인



김의빈

현 이스트소프트 서버 개발자

Q 현재 하는 일과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이스트소프트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비슷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중 현재 하고 있는 이 서버 개발자 일이 가장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Q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 왔는가?

원하는 회사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이 가장 힘들었다. 옛날에는 원하는 분야의 회사 공고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막상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니 공고가 많이 없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목표했던 회사를 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잡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하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Q 성결대에 와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컴퓨터공학과 전공 수업에서 경험했던 실습수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실습 후 동기들과 함께 프로젝트 만드는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했던 경험이 다른 학교 사람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함께 작업할 때 유용하게 작용했다. 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과 항상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다.

Q 대학 시절 가장 생각나는 활동이나 일은?

학교 선배와 함께 나갔던 공모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친분이 하나도 없던 선배에게 무턱대고 전화를 걸어 함께 공모전을 나가자고 말을 했었다. 선배가 나의 패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셨었는데 이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다. 또 '애플' 동아리 부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동아리에서의 추억 또한 기억에 많이 남는다.

Q 컴퓨터공학과 지원을 생각하는 입시생들과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타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거나,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컴퓨터공학과와 잘 맞을 것이다. 컴퓨터공학과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원 없이 펼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현재 내가 하는 이 분야는 신입 공고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우들의 기회의 문도 좁아졌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런 시련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 컴퓨터공학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성결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우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한다.

글/인터뷰 - 김채린 편집장 coffs787@sungkyul.ac.kr

아무튼 1호선

놀러 오세요 동인천역으로!

1호선을 자주 타는 학우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동인천 급행. 그 열차의 종착지인 '동인천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동인천을 종종 방문한다. 한 번 방문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낭만이 가득한 동네, 바로 동인천이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



배다리 헌책방 거리는 지난 60~70년대 배움에 목마른 이들이 학문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었던 인천 지역의 유일한 헌책방 골목이다. 배다리 헌책방 골목의 책방에서는 국문학과서부터 미술, 음악, 한방 등까지 모든 서적을 다루고 있다. 또, 밝은 노란색 간판이 시선을 붙잡는 '한미서점'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알려져 더욱 인기를 끌었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는 단순히 서점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관광 명소다. 최근 몇 년간 레트로가 유행하고 있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있는 서점들은 그 낡음 속

에서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감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책에 관심이 없더라도 좋다. 단순히 이 거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이 된다. 인천에 거주하는 필자는 종종 동인천을 찾는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가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거리가 안정감을 준다. 사람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책을 구경하고 구매하는 것도 쓸쓸한 재미가 있다. 책에 그려져 있는 밑줄이, 쓰여 있는 메모가, 책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게 만든다.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책을 찾으러,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가보자.

#애관극장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극장이 어디인지 아는가? 정답은 애관극장이다. 1895년 협률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보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을 담은 애관으로 개명해 지금까지 총 128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가볍게 영화 한 편 볼까?"하고 갔던 영화관은 이제 큰맘 먹고 가는 장소로 바뀌었다. 영화 한 편에 평일 12,000원, 주말 15,000원이라는 가격은 꽤 부담스럽다. 하지만 애관극장에서는 9,000원이라는 가격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인천 토박이인 필자는 올해 애관극장에 처음 방문해 봤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꽤 북적였다. 영화관의 매점에서는 콜라와 팝콘도 판매했으며, 시설도 깔끔하고 다른 영화관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었다. 관람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애관극장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영화 관람 후 애관극장 옆의 신포시장에 가 먹거리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학우들에게도 이 코스를 추천한다.

#개항로 맥주

개항로 맥주를 들어봤는가? 개항로 맥주는 인천 중구의 구도심, 즉 동인천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이 중단된 건축물을 업사이클링 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운영·마케팅하는 도시재생 및 시장 활성화하는 개항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역의 예술가들과 협업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맥주의 '개항로'라는 글씨는

54년간 목간판을 만들고 계신 전원공예사 전종원 어른이, 모델은 과거 인형 극장의 영화 간판을 그렸고 현재는 동화마을 미술가로 활동하고 계신 최명선 어른이 해주셨다. 개항로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사진과 같은 포스터를 많이 볼 수 있다. 개항로 맥주는 개항장과 개항로 일대의 가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필자가 방문했던 개항로의 식당인 '개항면'에서도 개항로 맥주를 판매하고 있었다. 당시 맥주를 맛

보지는 못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개항로를 방문해 개항로 맥주를 마셔보고자 한다. 끝 맛이 깔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맛이라는 라거, 개항로 맥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개항로에서 맥주 한 잔 어떨까. 글 - 권경아 수습기자 kka468@sungkyul.ac.kr 사진 - 인천in [참조] - 동구문화관광 홈페이지, 연합뉴스, 대한경제

북적 북적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게 됐는지 생각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하지만 삶의 근원을 풀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김상욱 교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통해 이 답을 풀어나가하고자 한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은 저자인 김상욱 교수가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한 책이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세상을 책에 담았을까? 이 책은 '원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한다. 물리학자가 볼 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원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어려운 양자역학 일부를 소개해야 하는 위험이 있지만 그런데도 원자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책에 담겨있다.

2부에서는 '지구와 태양'을 다룬다. 우주에 존재하는 중요한 무생물은 별과 행성이기 때문이다. 시공간과 원자의 세부 구조인 핵뿐만 아니라 기본입자까지, 저자는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 이로써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별은 태양이고 중요한 행성은 지구라는 것을 일깨운다. 3부는 '생명'을 다룬다. 물리학자에게는 생명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물리학자의 시선이 느껴지도록 유전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와 진화의 역사에 관한 질문을 중

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4부의 주제는 '인간'이다. 생물 종으로서의 인간과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중점을 뒀다. 덧붙여 '정보'를 다루는 장을 따로 마련하였는데, 인간의 의식과 생각을 무생물 차원에서 끌어올 수 있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지만, 모든 주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꿰뚫어 보려는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주제의 층위가 바뀔 때

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특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운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 제목이다. 하늘, 바람, 별은 그 시집에 실린 「서시」에 등장하는 단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책의 저자 김상욱 교수에게 하늘은 우주와 법칙, 바람은 시간과 공간, 별은 물질과 에너지로 다가온다. 즉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저자는 인간을 더해 비로소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

저자 물리학자 '김상욱'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양자물리학을 연구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다정한 물리학자다. 저서로는 『김상욱의 양자 공부』, 『떨림과 울림』, 『뉴턴의 아틀리에』 등이 있다.

기억에 남는 글귀, 구절이나 장면

필자가 생각하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는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글귀였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물리학자 김상욱'이 생각했을 때 죽음은 가장 자

연스러운 형태라 말한다. 그렇기에 굳이 죽음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몸은 원자로 이뤄져 있어 원자의 집단이 갖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흙, 돌, 바다, 공기, 지구, 달, 행성, 태양, 은하

등은 모두 죽어 있다. 아니, 살아있는 특별한 상태에 있지 않다. 즉 죽음은 생명의 반대말로 정의되지 않고, 생명이야말로 그 자체로 특별한 상태라고 말한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이 책을 읽기로 마음먹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어려운 과학 얘기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TV 프로그램에서 김상욱 교수가 이

책의 내용 중 하나의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고는 곧장 읽기로 마음먹었다. 생각보다 읽기 수월했다. 우리가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물리학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인간 한 사람으로서

답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상욱 교수나, 과학, 인문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우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글 - 유진규 수습기자 thanfaktmxj@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이미지, yes24 / [참조] yes24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지난 9월, 지친 학업에 한 줄기의 즐거움을 선사한 영암체전과 전 아시아사람들이 열광했던 '제19회 아시안게임'을 기억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린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와 영화로 잊지 못할 스포츠의 열기를 이어가 보고자 한다.



제목 잉글리시 게임
개요 ▲드라마
개봉 2020.03.20.
출연 배우 에드워드 홀크로프트,
케빈 거스리, 살렛 호프 등

#축구에 존재한 계급

19세기 영국, 귀족들은 대학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만들어 국민 오락으로 성장시켰다. 최상위 귀족들은 축구협회와 귀족들을 위한 FA 컵 대회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자 귀족과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 축구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항상 FA 컵 대회의 우승은 귀족 팀인 올드 이토니언스가 가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랭커셔 지방의 다웬 방직공장의 선수들이 8강까지 진출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 이변의 가운데 주인공 퍼거스 수터가 있었다.

퍼거스 수터와 그의 친구 지미 러브는 다웬의 구단주인 월시에게 타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약속받고 다웬 팀으로 옮겨 가게 된다. 월시의 편애에 다른 선수들은 수터와 지미를 따돌리지만 수터의 전술 능력이 경기를 승리를 이끌자 선수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

다웬팀의 다음 대결 상대인 올드 이토니언스는 축구협회의 협회장과 임원, 귀족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이는 곧 축구란 스포츠를 만든 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처럼 불리한 경기에 주장이자 축구협회의 협회장인 아서 키네이드의 권력남용이 더해져 결국 다웬팀은 완패하게 된다.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당시 축구는 순수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었기에 돈을 주고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위법 사항이었다. 월시는 위법이었음에도 자기 팀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수터를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이었다. 그런데 법을 어긴 팀은 다웬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노동자 팀인 블랙번의 구단주 카트라이트가 수터를 돈으로 스카웃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수터는 결국 제의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돈을 주고 선수를 사 왔다는 이유로 결승을 앞둔 올드 이토니언스와 블랙번의 경기에서 블랙번 선수들의 자격을 탈락시키려한다. 이에 수터는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공정함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귀족들은 풍요롭게 지내며 훈련에 몰두하지만, 노동자 팀은 주 6일을 일해 간신히 벌어들여 쉬는 날에 연습까지 해야 하는 것은 불평등한 출발이라고 말이다.

드라마 <잉글리시 게임>은 현재 영국의 축구 리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뿐더러 산업혁명 당시 계급 갈등을 느낄 수 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수터는 자신의 계급으로 인해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것에 있어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운다. 어쩌면 계급제란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터처럼,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목 스프린터
개요 ▲영화
개봉 2023.05.24.
출연 배우 박성일, 임지호, 송덕호 등

#길을 잃어버린 3명의 육상선수

각자 육상에 대한 미련, 희망, 욕망을 가진 세 선수가 있다. 한때는 국내 최고였지만 이제는 기량이 떨어진 30대 현수. 육상의 유망주였지만 팀의 해체 위기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10대 준서. 뒤를 쫓아오는 후배들에게 압박받는 20대 정호. 3명의 육상선수는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단거리 국가대표를 위해 달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0대 현수는 100m 신기록도 2번 세우며 육상계의 주인공과 같은 존재였지만 흐르는 시간 앞에서 한계를 느끼는 선수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루틴대로 달리지만 코치의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다른 선수들을 보며 점점 한계를 느낀다.

10대 준서는 타고난 재능으로 육상의 유망주라 불렸지만, 점차 꺾이는 성장세와 학교 내 육상부의 해체 위기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육상부의 코치인 지완이 가지고 있었다. 지완은 정규직 전환과 육상부 해체가 대치되는 상황이었으며, 그가 코치 대신 정규직 자리를 선택한다면 육상부가 해체되는 것이다. 하지만 준서의 육상에 대한 열망을 보며 코치의 길을 선택한다.

20대 정호는 현재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다. 그는 확고한 목표와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결국 약물을 선택한 정호는 이를 코치인 형욱에게 들키고 만다. 하지만, 정호는 비밀을 지켜달라 하며 자신이 국가대표가 되면 전담 코치를 맡기겠다고 제의한다. 이에 형욱은 결국 이를 묵인한다.

#같이 달리게 된 3명의 육상선수

10대, 20대, 30대의 육상선수들은 단거리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같이 달리게 된다. 4등으로 경기를 치른 현수에게 아내 지현은 승부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수고했다는 의미의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다. 준서의 코치 지완은 순위권에 든 준서로 인해 정교사가 되는 기회가 사라졌다. 이를 알고 있던 준서는 지완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지만, 그는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정호의 경우는 달랐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으로 들어온 정호였지만 그의 코치 형욱은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영화 <스프린터>는 정호의 도핑테스트 결과를 알리는 전화로 끝이 난다. 결국 4등이던 현수가 3등으로 국가대표가 된 것이다. '스포츠 정신'이란 목표보다는 정정당당한 승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포츠 정신뿐만 아니라 미래를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책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멋진 위로를 선사하는 것이 어떨까?

글 - 지연서 수습기자 yeonsoo0127@sungkyul.ac.kr
사진 - 넷플릭스, 네이버 영화
[참조] - 씨네21, 네이버 영화

은행 같 일? 없어요! 없어!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송금이 가능한 모바일 뱅킹이 대중화된 요즘, 송금만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준 모바일 뱅킹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이번 398호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모바일 뱅킹의 장단점과 여러 앱에 대해 알아보자.

#모바일 뱅킹? 그게 뭐예요?

모바일 뱅킹이란 ▲스마트폰 ▲PDA(개인용 디지털 단말기) 등 이동통신기기를 수단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다. 한국에서는 2000년 SKT에서 WAP 방식의 엔탑(n.Top) 서비

스를 처음 제공했고, 2003년 LGT에서 IC 칩 방식의 뱅크온(Bank On)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우리은행이 VM 방식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기반한 모바일 뱅킹 등

록자도 급증했다. 모바일 뱅킹과 유사한 서비스인 인터넷 뱅킹과의 차이점은 두 서비스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만 모바일 뱅킹은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바일 뱅킹의 장단점

요즘 들어 사람들은 터치패이를 때 모바일 뱅킹을 많이 사용한다. 1원 단위 송금이 가능해 정확한 금액을 나눌 수 있어 좋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는 방법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단하게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통장 정리를 위해 은행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만 존재할 것 같은 모바일 뱅킹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그중 제일 큰 단점은 보안 문제다. 주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에 만약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한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2차 피해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단점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다. 젊은층의 사

람들은 스마트폰을 다루기 쉬워 모바일 뱅킹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령층의 사람들은 모바일 뱅킹을 쓰는 것보다 은행에 직접 가서 거래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한다. 한 o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장구은행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자, 은행 점포를 없애고 있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층들이 은행에 가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해야 하는 고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한은행에서는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 생활과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험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체험 및 실습을 통해 고령층의 모바일 뱅킹 문턱을 낮췄다.



#No.1 모바일 뱅킹 앱 토스



모바일 뱅킹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앱은 두 가지가 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뱅킹 토스는 아무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이체 수수료가 없어 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유명하지 않은 기업이라 어른들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에 토스에서는 ▲만보기 ▲버튼 누르기 ▲친구와 함께 토스 키고 포인트 받기 등 소소하게 포인트를 모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토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유입해 연령층을 다양화시켰다.

아직 학생 신분인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하지만 토스 카드는 교통카드를 미리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후불 교통카드라는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커피를 사 먹으면 100원, 500원씩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100원씩 캐시백을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토스는 주기마다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선

보이며 지금도 토스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현지 화폐, 토스에서는 환전 또한 가능하다. 미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한 후 자신이 지정한 하나은행에 방문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화폐를 받을 수 있다. 환전을 하려면 환전 수수료가 들기 마련인데 토스에서는 첫 환전 시 수수료가 없고, 두 번째 환전부터는 최대 90%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가 대세!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카카오뱅크다. 토스보다 먼저 이름을 알렸던 카카오뱅크는 토스와는 다르게 카카오뱅크 계좌 간의 당행 이체만 무료이고, 타행 이체는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면제된다. 카카오뱅크의 장점 중 하나는 상대의 계좌를 알지 못해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이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대와 카카오톡 친구가 돼 있어야 하며 24시간 내 상대가 입금받지 않은 경우엔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에서 출시한 카카오 mini 카드는 만 7세 ~ 만 18세 미성년자들을 위한 카드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

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의 고객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 카드에는 티머니 교통카드가 기본으로 들어있으며 카카오뱅크 앱에서 티머니를 바로 충전할 수 있어 편의점에 가서 잔액 확인과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편리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을 위한 카드 이기에 결제 한도가 낮은 것(1일 결제 한도 50만 원, 1달 결제 한도 200만 원)이 단점이다.

2018년 12월 출시한 '모임통장' 서비스는 친구, 커플, 가족 또는 동호회 등 모임 회비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임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계좌의 [계좌관리 > 모임

통장 사용하기], 또는 [전체 탭 > 모임통장]에서 보유한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 후 모임통장을 함께 쓸 멤버를 카카오톡으로 초대한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카카오뱅크에 회원가입한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명의 계좌로, 모임주는 모임통장 지급 및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멤버를 초대하거나 끌 수 있으며, 모임통장의 입금내역을 회비로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모임주에게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더 이상 은행에 가지 않아도 통장 개설, 송금 등 간단한 업무는 제약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사용한다는 안도감에 모바일 뱅킹 사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보안에 무심경한 모습을 보인다. 이제 우리는 자기 선택의 책임을 갖는 성인이다. 그러므로 모바일 뱅킹의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해 더욱 나은 서비스 이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글 - 이현림 수습기자 lks070812@sungkyul.ac.kr
사진 - 경향신문, 토스 홈페이지
[참조] - OBS 뉴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토스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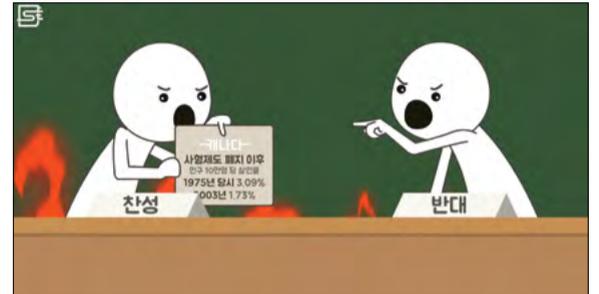
사형제의 부활

최근 들어 뉴스에서 보도되는 흉악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전 국민을 분노에 빠뜨린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사망자 2명, 부상자 12명을 발생시키며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인 사형제도에 대해 이번 호에서 알아보자.

사형제, 부활에 대한 의견대립

최근 들어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면 몇몇 사람들은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흉악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요즘, 일각에서는 사

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무거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가족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범죄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형제, 법적 근거는?

사형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로, 국가권력이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제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 37조 2항이 꼽힌다.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형제가 헌법의 취지에 맞는지(합헌), 어긋나는지(위헌)는 해석에 따라 갈린다. ‘흉악범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합헌이다’ vs. ‘생명권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침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제 역시 위헌이다’로 볼 수 있다.

했다. 개별 범죄보다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예방은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일반 예방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형벌이 존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두 번째 특별 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시키는 것으로, 모범적인 죄수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가석방 같은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사형제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맞는지 따져보면 응보·일반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특별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범죄 예방’이다.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는 유명한 말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응보란 저지른 죄에 맞는 짓값을 치르게 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 실현이다. 하지만 오늘날 형법은 응보보다 예방에 힘쓰는 방향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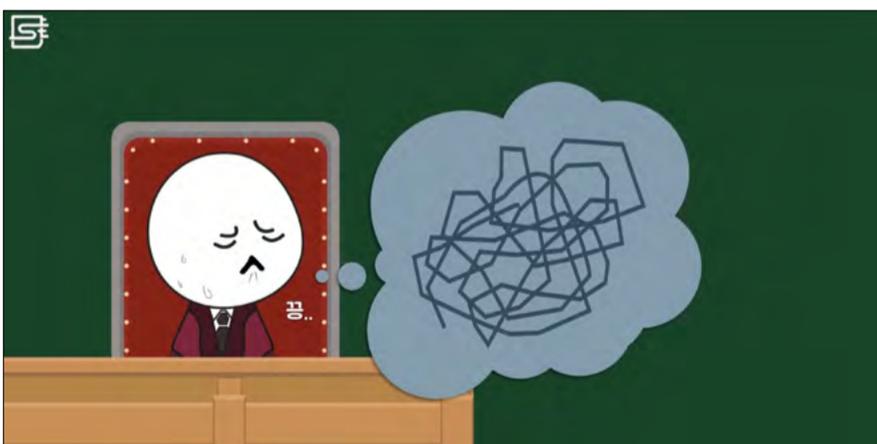
사형제, 시행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인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지금까지 25년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는 해도 집행까지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사형제를 폐지하는 건 국제사회의 대세다.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형제 폐지론이 떠올랐다. 이 시기를 거쳐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 등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이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에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형제, 현재 상황은?



현재까지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3번 있었다. 1996년에는 재판관들이 7:2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0년에는 5:4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3번째는 아직 따져보는 중이다. 이처럼 합헌 결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양측 판단이 더 팽팽해지고 있다.

현 정부는 피해자 측면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짓값을 치르도록 하는 ‘응보’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사형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없애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지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법무부도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현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고 둘 다 형벌로써 두겠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사형제가 강력범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일일이 사형제를 떠올리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형을 집행시킴으로써 사회와 단절시키면 끝이라고 여기는 건 너무 고전적인 방식 같다. 정부는 더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글 - 김근형 수습기자 hanangun@sungkyul.ac.kr

사진 - 사물궁이 잡학지식

[참조] 한국일보, 매일경제





지난 9월 19일(화) 본교 운동장에서 제39대 '너와 함께 그려낼 순간, Sketch'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한 2023 동아리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Sketch Village'라는 컨셉으로 6개의 마을과 각 마을을 지키는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올해도 다양한 동아리가 참가한 페스티벌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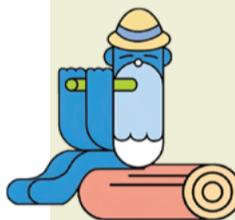
#스케치 마을, 마스코트: 스동이

스케치 마을은 'Sketch Village'의 본부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한 장소로 ▲동아리 추천과 팸플릿 및 음료를 제공한 매표소 ▲방명록을 남길 수 있었던 보호수 ▲추억을 남길 인생네컷 ▲다양한 미션과 경품을 제공한 운영 본부까지 전반적인 진행 요소들이 위치해 동아리 페스티벌의 원활한 진행과 마무리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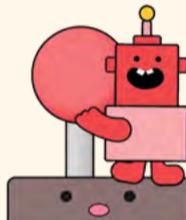
#동아리 마을, 마스코트: 아리

동아리 마을은 본교 24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동아리 부스가 설치된 장소로 각 동아리에서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게임과 먹거리들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날 부스 꾸미기 1등을 수상한 산돌찬양선교단은 미니붕어빵과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학우들의 입맛을 돋울 디저트 부분을 채워줬다.



#이웃 마을, 마스코트: 우시

이웃 마을은 본교 동아리 이외에 외부 부스와 학생 부스가 설치된 장소로 기존의 부스들과는 다르게 외부 협찬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학우들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미술 부스와 믿고 먹는 떡볶이 맛집인 블루인 부스, 그리고 플라마켓과 푸드트럭 등이 준비돼 지루할 틈 없이 동아리 페스티벌의 공간을 가득 메웠다.



#오락 마을, 마스코트: 라기

오락 마을은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대형 윷놀이와 ▲발판치 ▲손판치 ▲두더지 잡기 ▲에어하키 등 다양한 오락기가 설치돼 학우들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다양한 상품까지 증정해 학우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했다.



#힐링 마을, 마스코트: 휴

힐링 마을은 동아리 페스티벌을 즐기는 학우들을 위한 휴식의 장소로 빅백, 파라솔, 의자 등이 설치돼 다양한 부스에 구매한 음식들을 먹는 장소와 동시에 지친 학우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을 선사했다.



#홍얼 마을, 마스코트: 홍얼이

홍얼 마을은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메인 스테이지 장소로 3개의 프로그램인 ▲Village Playlist ▲우리 마을 끼쟁이 ▲난 그대의 연인이 진행됐다. '우리 마을 끼쟁이'는 넘치는 끼와 재능을 겸비한 성결인들의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었으며 '난 그대의 연인'에서는 동아리의 꽃, 예능분과 동아리에서 준비한 무대들이 학우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Sketch' 동아리연합회 서형원(산경 18) 회장은 "매년 2학기마다 진행됐던 동아리 페스티벌을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하게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들과 함께 학교 최초로 외부 업체의 협찬과 외부 부스를 들일 수 있었다. 실제로 상상유니브와 같은 부스 체험을 통해 많은 학우분이 만족하시며 즐거워해 주셨는데 열심히 노력한 시간만큼 풍성한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며 전했고 "앞으로도 동아리연합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Sketch 동아리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학우들에게 인사를 남겼다.

이번 동아리 페스티벌은 개강을 맞아 차분했던 본교 내에 활력을 불어넣는 2학기 첫 행사였다. 이를 통해 본교 동아리는 자신들의 색깔을 뽐낼 수 있었으며 학우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해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었다. 본 행사를 준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한 제39대 '너와 함께 그려낼 순간, Sketch' 동아리연합회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zcjtjdz@sungkyul.ac.kr
사진/[참조] - 학보사, 제39대 'Sketch' 동아리연합회

기자칼럼



김채린 수습기자

일명 'MZ세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MZ세대'는 1981~1996년생인 밀레니얼세대(M세대)와 1997~2012년생인 Z세대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를 말한다. 최근에는 이 MZ세대가 불러오는 여러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추석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옛날에는 차례나 성묘 등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행사들이 있었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꼭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명절날 가족들과 식사만 하거나 외가 또는 친가에 방문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처럼 'MZ세대'가 하나의 밈처럼 여겨지며, 바라보는

'MZ세대'를 바라보다.

시선이 분분하다. 먼저 MZ만의 트렌드인 '선(善)식지향'은 식물성 제품을 섭취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다양한 식품업체는 식물성 캔햄, 콩단백을 활용한 식물성 패티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선식지향'을 실천하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MZ가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된다.

한편 필자가 읽은 한 기사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A씨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MZ세대라서 채용을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고용주의 문자를 받은 사연이 적혀있었다. 이는 온라인 상에 'MZ세대'의 무개념 아르바이트생 일화들이 다수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 회사에 다니는 B씨는 주변에서 'MZ세대들이 퇴사율이 높다. 참을성이 없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다.'라는 말들이 들려온다고 했다.

이처럼 MZ세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사회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특정한 일부 개인 사례들을 'MZ세대'라는 프레임에 씌워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기성세대와 MZ세대들의 충돌 또한 문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 비난하고 더 나아가 혐오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MZ세대'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함께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글 - 김채린 수습기자 kl3672@sungkyul.ac.kr

체험에세이



유진규 수습기자

몇 주 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모인 이유는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식사를 마치고 식구들과 사진관까지 이동했다. 근데 문득 생각에 잠겼다. 왜 가족사진을 찍을까? 가족사진에 담긴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마 지금 가족사진을 찍으러 가는 순간에도 엄마, 아빠, 고모, 고모부, 삼촌, 큰아버지, 큰어머니 등 의미가 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보통 가족사진을 찍는 건 무엇을 기념하거나, 추억하기 위해서 찍는다. 필자는 이번 가족사진은 추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사진관에 도착해서는 다들 꽃단장하기에 바빴다.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화장, 머리를 고쳐주며 최대한 예쁘고 멋있게 준비를 마쳤다. 곧이어 사진 촬영이 시작됐고, 사진을 찍기에 앞서 사진사는 주의사항을 읊어주는

가족사진

“
지금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었다. 사진사가 우리 가족에게
항상 웃으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날에 의미를 찾지 말고
후회 없이, 서로 웃으며 보냈으면 한다
”

데 세세히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항상 웃으라고 했던 것만 기억이 난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주인공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고, 어른들을 보는데 찰나의 무엇인가가 내 감정을 휘몰아쳤다. '아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어른들은 주름이 눈에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를 덮고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더 밝은 표정을 지으시려 하는 어른들의 미소는 오히려 세월의 흐름을 숨기듯 하는 것 같았다. 밝은 분위기에서 촬영은 계속되었다. 1부 촬영이 끝나고 사진사는 배경을 바꾸기 위해 옆 부스로 이동을 권한다. 아까의 감정이 좀처럼 필자에게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때, 할아버지가 해맑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아 주셨다. 굳어 있던 내 표정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할아버지를 따라 웃고 있었다. 2부 촬영이 끝나고, 일이 있어 우리 식구는 인사를 마치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가족사진을 왜 찍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됐다. 아무런 의미 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지금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었다. 사진사가 우리 가족에게 항상 웃으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날에 의미를 찾지 말고 후회 없이, 서로 웃으며 보냈으면 한다.

글 - 유진규 수습기자 thanfaktmxj@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대학 생활 극복기

필자는 대학 입학 전 드라마를 보며 달콤한 캠퍼스 로망을 꿈꿨다. 수업 후 먹는 학식,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MT, 동기들과 즐기는 축제 등 대학에 입학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자마자 시작된 코로나 시대로 인해 설렘으로 가득한 캠퍼스가 아닌 답답한 비대면 캠퍼스가 필자를 반겼다. 2년 뒤 지루했던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그토록 기다렸던 캠퍼스 라이프를 처음 만끽했을 때, 이상하게도 설렘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처음 접해보는 대면 수업과 새롭게 시작된 인간관계, 이 모든 게 다 어색하게 다가왔다.

소심한 성격의 필자는 처음 맞이하는 캠퍼스 라이프가 적응되지 않았다. 초반에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

으로 달려가 동네 친구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절대 적응하지 못할 것만 같던 학교생활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무엇이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각종 동아리와 소모임에 들어갔다.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수어 소모임과 학보사, 봉사 동아리까지 다양한 모임에 가입했다. 막연하게 학교생활을 알차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간 모임들은 어느 순간 나의 일상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 아침마다 가기 싫었던 학교가 점점 즐거워진 것도 어쩌면 이러한 모임들 덕분일지도 모른다.

4학년이 된 지금, 필자의 대학 생활을 돌아해보면 그토록 꿈꿔왔던 로망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수업이 끝나면 매번 동기들과 놀러 다니거나 캠퍼스에 앉아 수

다를 떨 것만 같았던 캠퍼스 로망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를 하기 바빴고, 캠퍼스에 앉아 여유롭게 수다를 떨기엔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았다.

비록 그러왔던 로망과는 달랐지만, 나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동기들과 소모임, 동아리 그리고 학보사 친구들 덕분에 필자의 대학 생활은 그 누구보다 빛났다.

아마 이 글을 읽는 학우들도 각자 꿈꿔왔던 캠퍼스 로망이 있을 것이다. 로망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온전히 즐긴다면 지금 하는 이 대학 생활이 언젠가, 빛나는 청춘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주간사설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와서 - 영화 <더 킹 타이드>에 관한 소고(小考)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

영화는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내포하는

아일라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자 하였다.

”

우리대학의 인문영상 융합사업(TEC)의 하나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학습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융합사업의 운영위원이자 인솔 교수로서 영어영문, 중어중문, 영화영상의 세 학과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자칭 ‘영화광’인 필자는 이 기회를 틈타 다양한 국적의 영화 네 편을 보았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일본 영화 <괴물>, 스위스의 페미니즘 영화인 <블랙버드 블랙버드 블랙베리>, 프랑스의 법정영화 <더 골드만 케이스>, 그리고 캐나다의 미스터리 스릴러물인 <더 킹 타이드>가 그들이다. 네 영화 모두 화제작으로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 중 크리스찬 스팅크스(Christian Sparkes) 감독의 <더 킹 타이드>를 간략히 소개하고 영화에 관한 짧은 감상을 해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올해 토론토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작품으로서,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외딴 섬에서 촬영되었다. 그 섬이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매우 좁고 황량하여 주인공 몇 명을 제외하고 실제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이 출연했다고 한다.

캐나다의 한 작은 외딴 섬마을에 이장으로 사는 바비와 그의 아내는 본토와 격리된 채 몇 안 되는 주민들과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거대한 파

도가 일어나는 ‘더 킹 타이드’(The King Tide)가 몰아치던 어느 날, 한 갓난아기가 과도에 밀려오게 되고 바비 부부는 그 아기를 정성스레 팔로 키운다. 아기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초능력 소녀(아일라)로 자라서 섬마을 주민들의 병을 치료하고, 손짓 하나로 물고기 떼를 모으는 등,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신비한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 소년 주니어는 친구 아일라를 순수한 동심으로 대하고 바비는 그녀를 평범한 딸로 키우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아일라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점점 탐욕과 욕심이 극에 달해 소녀를 이기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결국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아 대파국에 이른다. 소박했던 시골 어촌 마을은 잔혹한 핏빛으로 물들고 소녀 아일라만 섬에 남은 채 황량한 자연을 바라보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극장에는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과 관객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었고, 숨겨진 상징과 작품의 의미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영화 <더 킹 타이드>에 대해 감독은 “마법 같은 치유력을 가진 아이와 길 잃은 권력을 바로잡으려는 일부 주민의 투쟁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 감독은 이 영화는 “인간

과 자연에 관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영화에 계속 등장하는 ‘벌’(bees)의 의미에 대해 한 관객이 묻자, 이는 평소에는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이나 위험과 함정에 빠질 때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중성과 양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메타포라고 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마법의 능력을 지닌 신비스런 소녀 아일라가 생명과 죽음, 평화로움과 위험을 동시에 암시하는 자연의 양면성을 상징한다고 느꼈던 내 생각과 통하는 요점이었다. 결말에서 섬 주민들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국의 원인은 소녀 아일라가 아닌, 섬 주민 자신들이었다.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망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심의 결과로 악인들뿐 아니라 선인들까지도 모두 최후 심판에 이르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영화는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내포하는 아일라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자 하였다.

“영화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게 한다.”는 감독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다. 필자가 영문학에 매료되고 영화에 빠진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지 생각해본 하루였다.

교수칼럼

우리가 고대하는 미래 교육



배지현 교수
유아교육학과

‘배 선생’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배 선생을 부르면 커피 부탁 또는 회의를 의미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던 교직 문화였지만 선배 교사와 후배 교사 간의 소통과 돌봄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 가르치고 배우는 위계가 명확했고 당시에는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MZ 세대 이상의 오렌지족과 X 세대를 넘나들던 만만치 않은 신세대였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정’이 넘치던 시간이었다. 29년째 우리는 서로를 격정하며 만나고 있다.

코로나 19라는 거대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직 문화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선배 교사가 가르치고 후배 교사가 배우는 것이 아닌, 후배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고 선배 교사들이 배우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유아교육을 가정과 연결해야만 했다. 예비 유아 교사들의 전공 수업에서도 원격수업 설계역량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의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협력적 문제해결’이었다. 문제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 교사가 될 현재의 MZ 세대 예비 유아 교사들은 MZ 세대(1981~2010년생), X 세대(1966~1980년생), 베이비붐 세대(1956~1965년생)가 포함된 신입교사, 경력교사, 원장 집단에서 생활하게 된다. 소통? 쉽지 않다. 자기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며 업무가 남아있어도 퇴근을 우선시하는 MZ 세대들이, 일이 있으면 퇴근 시간 없이 한없이 헌신하는 원장 세대와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교사들의 세대 간 어려움과 갈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낱일 같지 않다.

현재 유아교육 현장은 학생인권 조례의 도입 이후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저출산으로 더 귀해진 자녀들의 존재감으로 인해 교사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보도되는 교사와 부모 간 갈등상황에 지레 겁먹고 교직을 포기하고 진로변경을 고민하는 학생

도 나오고 있다. 교사 세대 간, 부모와의 갈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유아교육인’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2023년 9월 21일 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전에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이지 않았을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산적해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의 모인 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감과 치유가 되어주어야 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은 ‘유아 중심의 공동체적 삶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실천’으로 귀결된다. 유아, 교사, 학부모, 대학, 지역사회 모두 우리는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하며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대하는 미래 교육은 가르침보다는 배움, 자율적 행동과 학습,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s포인트 지급!

창업교육센터

2023.09.18.~12.31.

KICK-OFF

온라인 창업특강

창업!

특강!

통합역량개발
시스템 바로가기



창업아이템선정 ~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재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창업아이템 찾기 부터 전반적 마케팅까지

연 매출 2억 이상의 창업자가 알려주는 창업특강!!!!

통합역량
개발시스템

운영부서:
창업교육센터

KICK-OFF
창업특강 신청

성결대학교
사이버캠퍼스 수강

